

衣類素材展에 나타난 素材 傾向 分析⁺

- 2004/05 F/W Première Vision을 中心으로 -

金 信 希

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專任講師

Textile Trend Analysis shown in Textile Fair⁺

- Focusing on 2004/05 F/W Première Vision -

Kim, Sin-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Première Vision is a leading textile collection held since 1973. In this study, textiles for 2004/05 F/W season in Première Vision were analyzed at the various point of view, such as general trend, sub-theme, fiber content, color trend, structure, yarn trend, pattern, texture, decoration, finishing and other technical treatment, and functionality. There were three general trends; natural/ecology, geometry, and combination. Natural color and texture were widely used over the fabric exhibited, and irregularities expressed the natural trend of textiles. Geometric patterns were used for knit as well as for woven. Geometry expressed by various methods such as weaving, knitting, printing, shearing, embossing, and etc. However, geometry shown in this season was not a clear form expressed by weaving, but a blurry, irregular form expressed by various other methods such as knitting. The combination among heterogeneous fibers, yarns, colors, images, and textures was usual, however, the harmony among them was accomplished.

Key words: combination (복합), geometric (기하학적인), natural (자연스러운), Première Vision (프르미에르 비종), textile trend (의류 소재 트렌드)

I. 서론

국제 최대 규모의 의류 소재 전시회인 프르미에르 비종(Première Vision)이 지난 9월 17일에서 20일,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국제 규모의 의류 소재, 즉, 원단 전시회로서, 매년 2회 개최되는 프르미에르 비종은 1973년도 프랑스 리옹(Lyons)의 15명의

직물 제조업자가 시작한 의류 소재 컬렉션을 시초로 시작되었다. 1980년 유럽의 직물 생산업자들이 참가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의류 소재 컬렉션으로 자리잡아 텍스타일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처음으로 유럽외의 직물업체들도 참가하게끔 문을 열었다.(Première Vision, 2003) 올 2003 가을 컬렉션에서는 738개의 원단업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체가 2004/05 F/W 소재 전시를 펼쳤고, 프리미에르 비종 위원회에서 선별된 34개의 새로운 원단업체가 추가되었다. 전시업체는 국가별로 이태리가 339 업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149개 업체, 영국 59개 업체, 스웨덴 56개 업체, 독일 42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9개 업체, 대만의 1개 업체가 참가했다.(Première Vision, 2003)

의류 산업의 최종생산물인 의류는 그 구성 요소중 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을 뿐더러, 의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의류 소재가 담당하고 있다.(김정규, 박정희, 2001) 의류 소재는 그 자체로서의 완성도와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의류의 다른 요소, 즉, 디자인이나 실루엣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권오경 외, 2001) 따라서, 의류 소재의 올바른 선택과 기획이 의류 제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업계의 특성상 섬유 생산자와 의류 생산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고, 의류 생산자의 소재에 대한 이해와 섬유 생산자의 패션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소재의 생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고부가가치의 패션 산업을 리드하는 프랑스와 이태리등의 국가에서는 섬유 생산자와 의류 생산자간의 이해와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바로 의류에 도입되어 최종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박광희 외, 2000)

본 연구자는 국제 규모의 소재 전시회인 프리미에르 비종의 한국인 참관자의 규모가 적지않은 반면, 소재 트렌드와 소재 개발 동향등에 대한 정보가 국내 연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프리미에르 비종에 나타난 소재의 트렌드와 개발 동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소재 연구자와 의류 생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3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04/05 F/W 시즌의 프리미에르 비종 의류 소재 전시회에 참관하여, 전시된 의류 소재의 경향을 다각적인 시각, 즉, 트렌드, 서브테마, 섬유 조성, 색채경향,

직/편물 조직, 원사경향, 패턴, 질감, 장식, 후처리 및 기술적인 처리, 기능성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인터스토프 아시아(Interstoff Asia)와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제안한 2004 F/W 소재 트렌드, 작년의 프리미에르 비종의 소재 컬렉션과 비교분석한다. 프리미에르 비종의 구체적인 전시일자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전시주최: Première Vision

전시일자: 2003. 09. 17 - 2003. 09. 20

전시장소: Parc des Expositions
Paris Nord Villpinte
Paris, France

전시장구성: General Form, Wool, Knitwear,
Color woven/Shirtings, Silk/Prints/
Lace/Embroidery/Ribbon, Color
Trend, Sportswear/Activewear/
Denim/Corduroy

II. General Fashion Trend

프리미에르 비종에서 제시된 2004/05 F/W 소재의 전반적인 패션 트렌드는 interference, plotting, perfectly imperfect, condensing, constructing의 다섯가지이다.(Première Vision, 2003) 이 다섯가지 패션 트렌드는 Première Vision에 전시된 소재의 전반적인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첫째, interference는 “방해, 간섭”이라는 의미로, 소재와 소재의 복합, 대비되는 감성 소재의 믹스, 즉, 여성적인 레이스 조직 위에 남성적이고 과장된 장식, 전통적인 문양에 대한 과감한 소재 표현등으로 현재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복합화의 극적인 표현이 보여지고 있다.

둘째, plotting은 “계획, 계략”이라는 의미로, 인위적이고 의도된 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소재의 표현에 있어서는, 소재의 광택이나 부피감등의 특성이 고도의 하이테크에 의해 계획되고, 감춰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택감이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중직 사이에 금속사(metallic yarn)를 중간 중간 삽입함으로써, 잘 드러나보이지는 않지만, 광택과

광택의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소재를 등장시켰다. 프르미에르 비종의 표현에 의하면, “Do not trust appearances(외관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지 말아라),” 라는 용어가 등장했다.(Première Vision, 2003)

셋째, perfectly imperfect라는 트렌드는 상반되는 2개의 낱말이 하나의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는데, “완벽히 불완전한”이라는 의미로서, 불완전성, 즉, 불규칙한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는 소재들이지만, 이러한 외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완벽에 가까운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데님의 경우, 경면 능직의 사선이 한 방향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헤링본을 형성하기도 하고, 중간 중간 평직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불균일한 질감을 직조 변화로 표현하는 기법이 선보임으로서, 불균일한 외관의 느낌과는 달리 의도된 복잡한 직조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condensing이라는 트렌드는 직물/편물의 밀도감의 증가에 의해 조밀한 느낌을 표현하는 직물의 증가와 모직물의 축융을 이용한 밀도가 높고 두께감이 느껴지는 모직물, 극세사를 이용한 고밀도 직물등의 사용등으로 전체적으로 밀도감이 증가된 뽀뽀한 느낌의 매끈한 외관을 갖는 직물들이 이 트렌드를 대변하는 직물들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interference라는 테마와 맞물리면서, 밀도가 높은 직물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반대로 밀도가 매우 낮은 성글고, 거친 외관을 갖는 직물과 편물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밀도가 높은 직물과 밀도가 매우 낮은 직물의 복합도 눈에 띄는 양상이었다.

다섯째, constructing은 “구조, 구성”이라는 의미로 이번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소재 경향이다. 기존의 2차원적인 직물의 속성에서, 3차원적인 입체로서의 직물을 강조하는 소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부피감을 강조하기 위해 3중, 4중의 분당에 스폰지 소재를 가운데 삽입하거나, 구김 소재의 구김을 입체감을 주기 위해 구겨서 스티치로 고정을 시키거나, 부피감을 준 소재에 기하학적 패턴을 퀴팅해 주거나 하는 기법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기존의 패턴이나 질감으로 강조되던 직물의 패선성이 건축물과 같은 입체로서의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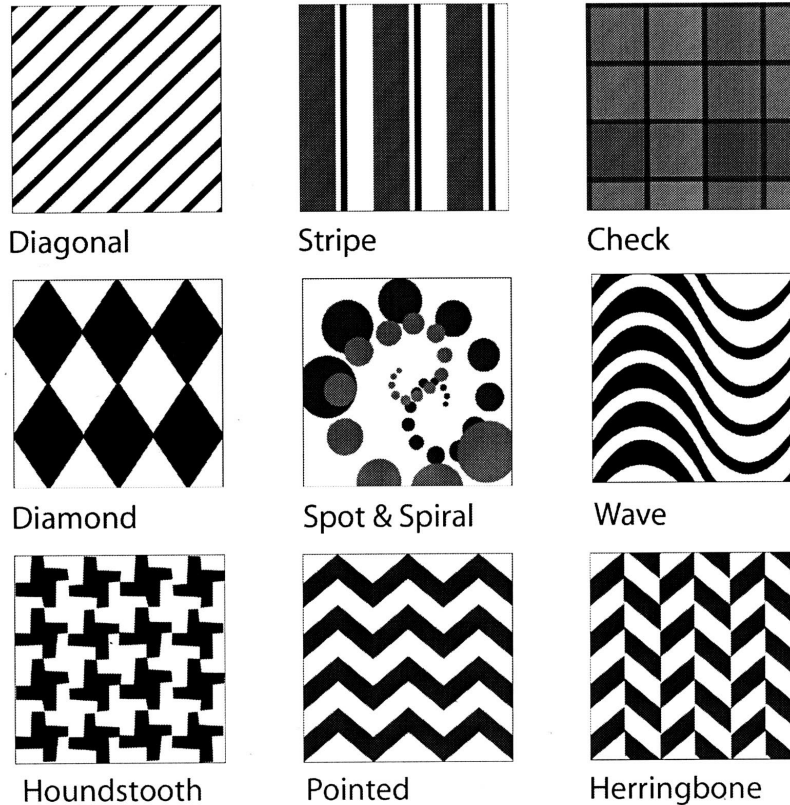
으며, 그 밑바탕은 역시 기술력과 끊임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자가 분석한 프르미에르 비종에 나타난 소재의 커다란 흐름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Natural/Ecology로서, 자연과 친화적인 소재, 색상, 질감등이 전체적인 흐름이었으며, 갈색과 검정, 녹색, 베이지등의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질감도 나무껍질과 같은 질감, 휴과 같이 조밀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의 질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성등이 소재 전반에 깔려 있었다. 또한, 고전적이고 민속적인 문양의 이용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 깔끔함보다는 흐릿한 느낌이 강조되었다.

둘째, Geometry를 들 수 있다. 하운즈투스(houndstooth), 헤링본(herringbone), 산형(pointed), 마름모(diamond), 사선(diagonal), 나선(spiral) 등의 기하학적 무늬(geometric pattern)가 매우 작거나, 드라마틱하게 크게, 그리고, 여러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접근되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 기하학적 무늬는 여러 소재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내추럴한 트렌드와 맞물려, 흐릿하고, 불균일한 느낌을 내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이었다. 꽃 무늬(floral pattern)까지도 기하학적 요소등으로 간략화해서 표현되어졌다.

셋째, combination or hybrid를 들 수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와 부합해 섬유, 복합, 색상의 복합, 조직의 복합, 분당에 의한 복합등의 복합소재가 많이 보여졌다. 프르미에르 비종에 전시된 소재의 예가 (그림 2)에 나와있다. 섬유의 복합에 있어서는 소재의 기능성 향상과 독특한 외관을 창조하기 위해 천연과 합성의 복합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2가지 이상, 즉, 3-5가지 섬유의 복합이 새로운 외관을 창조하고 기능성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색상의 복합 또한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패션 트렌드인데, 이번 시즌의 색상 복합은 색상의 매치를 고려한 색상의 복합이 주로 보여졌으며, 작년과는 달리 유사 색상간, 유사 채도간, 유사 명도간 색상의 복합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직물 조직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미있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데님의 경면 능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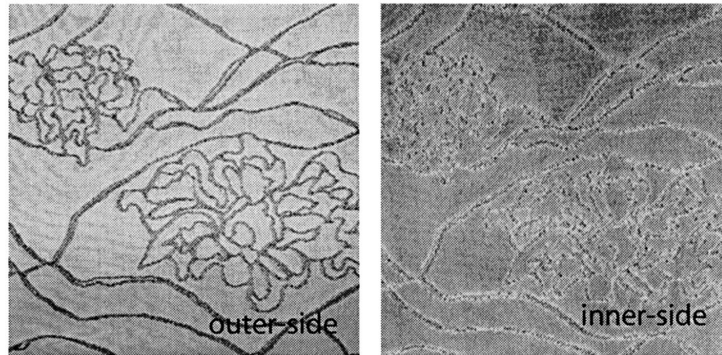


<Fig. 1> Geometric patterns extensively used in Première Vision 2004/05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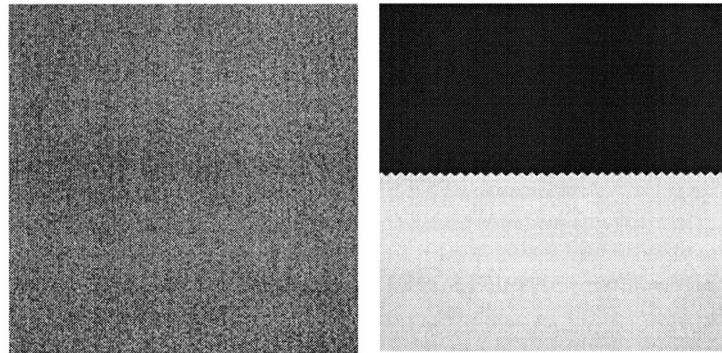
의 파괴와 다른 조직과의 복합은 새로운 시도로 보여졌다. 다중직의 경우, 전혀 다른 성질의 소재가 복합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색상이나 질감면에서 유사한 소재의 복합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펠트와 스폰지와 망사의 3중직의 본딩의 경우, 3가지 소재의 특성을 매우 다른 반면에 질감과 색상면에서는 비슷한 소재를 서로 본딩해 이질성이 있는 물질의 새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양상은 글로벌 트렌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소재의 기능적인 측면이 소비자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라이프 사이클과 맞물려 소재의 중요한 요소로서 떠올랐다. 과거의 기능적인 소재와 심미적인 소재가 별개의 소재로서 따로 취급되었던 반면, 최근의 소재들은 심미적이면서, 기능성을 가지는

소재들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심미적이기만 하고, 기능적인 측면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소재는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추세이다.(김정규, 박정희, 2001) 따라서, 소재의 기능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한 프르미에르 비종은 올해의 전시부터, 각 소재에 기능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마크를 붙여, 소재의 기능성을 참관자로 하여금 인지시켰다. 프르미에르 비종에 나타난 주요한 기능성 마크는 16가지로서, 항균성, 자외선 차단능, 양방향 스트레치, 온도 조절, 다중직, 발수성, 이중직, 이지케어성, 기능성 물질 침착, 방수성, 투습 방수 기능, 플리스, 멤브레인 부착, 한방향 스트레치, 재귀반사, 보온성 증진이다. (Première Vision, 2003, Performance Codes)



Double Knit (64% cotton, 28% nylon, 7% spandex)



Subdued lustrous knit
(49% viscose, 44% nylon, 7% spandex)

Double face (100% nylon)

<Fig. 2> Textile samples shown in Première Vision 2004/05 F/W (Fabric samples from Invista®).

III. Color Trend

프리미에르 비종에서 제시한 컬러 트렌드를 팬톤 컬러와 매치해 팬톤 컬러 칩의 가장 유사한 색상을 선택해 팬톤 컬러 번호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흑백을 기본으로 한 브라운계의 내추럴한 컬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녹색, 핑크, 버건디, 골드등이 악센트 컬러로 쓰였다. 색상의 전체적인 느낌은 드라이하고 매트한 느낌의 컬러들로 광택이 많이 사라진 자연스러운 대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Clay slip(3), mortar(6), compost(10), cement(13), glue(5), mahogany resin(12), meteorite(16), borsh(18), tar(20), astral(21), inky night(23), roughcast

(24) 등이 주요 색상으로 사용되었으며, pink plaster(1), ketchup(2), quince(4), fuchsia sorbet(7), mallard(9), parsley(11), menthol candy(14), limb(22), sulphur paste(19) 등이 악센트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IV. Fabric Trend

1. General Forum

General forum에 전시된 소재군은 2004/05 F/W의 일반적인 경향을 제시하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

<Table 1> Color trend in Première Vision 2004/05 F/W matching with pantone color chip.

| # | Color name | Pantone color # | # | Color name | Pantone color # |
|----|----------------|-----------------|----|-----------------|--------------------|
| 1 | Pink Plaster | 691U | 13 | Cement | 435C |
| 2 | Ketchup | 187C | 14 | Menthol candy | 7464C |
| 3 | Clay slip | 466U | 15 | Black moon | Black 5U |
| 4 | Quince | 128C | 16 | Meteorite | 533C |
| 5 | Glue | 9023U | 17 | Turkish delight | 243C |
| 6 | Mortar | 7529C | 18 | Borsh | 5185C |
| 7 | Fuchsia sorbet | 219C | 19 | Sulphur paste | 605U |
| 8 | Polish | 724U | 20 | Tar | Black M |
| 9 | Mallard | 632U | 21 | Astral | Hexachrome black C |
| 10 | Compost | 4625U | 22 | Limb | 290C |
| 11 | Parsley | 368U | 23 | Inky night | 540U |
| 12 | Mahogany resin | 483C | 24 | Roughcast | 9120C |

며, 참여업체의 가장 우수한 제품들을 모아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소재는 서브테마별로 구분되어 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브테마의 제목들만으로도 소재 경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시즌에 제시된 서브테마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테마의 형용사들을 분석해보면, 기하학적이고 (architectural, triangular, geometric), 조밀한 조직의(dense, stiffen, thicken), 부피감을 살려(double, blow up, enlarge, interfere) 조형성을 강조한 소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섬유 조성에 있어서는, 모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모와 캐시미어, 모헤어, 실크등과 같은 고급 소재와의 혼방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소재군과 기능성을 부가하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등의 합성섬유를

혼방해주는 소재군이 있었다. 또한, 기능성과 심미성의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기 위해, 위에 열거한 소재들을 모두 혼방해주는 소재도 많았으며, 스트레치를 가미하기 위한 스판덱스의 사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였다.

색상 경향은 내추럴한 갈색 계통과 검정이 주류를 이루며, 이에 흰색과 옅은 갈색, 남색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버건디, 녹색, 노랑, 핑크, 오렌지등이 악센트 컬러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데님의 경우, 검은색 경사와 오렌지색 위사를 사용함으로써, 오렌지색의 위사색상이 약간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거나, 핑크색의 위사와 갈색의 경사를 사용한다든지, 검정 멤브레인에 녹색 안료가 묻은 핀으로 마름모 모양을 펀칭해서 핀 자국에만 녹색이 드러나보이게 한다든지 해서, 내추럴

<Table 2>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General Forum.

| | | | | |
|----------------|---------------------|---------------------------|----------------|-------------|
| REDUCE | MAKE DENSE | DOUBLE | ABSORB | ADD SAUCE |
| STIFFEN | THICKEN | MAKE ARCHITECTURAL | TRIANDULAR | CONTRAST |
| MAKE GRAPHIC | MEMORIES | FLOWER | MAKE GEOMETRIC | BLOW UP |
| ENLARGE | INTERFERE | SINOUS | BLACK TIE | INTRIGUING |
| SYNTHETICS | SLEEPLESS NIGHT | HIDDEN FACES | MAGNETIZING | SILKY PLOTS |
| EARTH PATTERNS | PERFECTLY IMPRECISE | CONTROLLED IRREGULARITIES | | |

한 기본 컬러에 악센트 색상이 살짝 드러나 보이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보색의 이리데이션스(iridescence)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는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지만 오렌지의 경사에 녹색의 위사, 노란색의 경사에 보라색의 위사등을 사용하여,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보이는 색감을 강조시키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주조 컬러는 검정과 브라운이었고, 광택감있는 컬러보다는 매트한 컬러가 우세하였다. 앞서서, 컬러 트렌드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내추럴하면서, 드라이한 느낌의 컬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흑과 백의 대비도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되었다.

조직 경향은 크게 2가지 경향이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매우 조밀한 조직으로 밀도감을 강조한 조직과 매우 드라마틱하게 루스해서, 직/편물을 형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느낌을 내는 조직으로 양분되었다. 특히, 모직물의 경우, 조밀한 조직에 펠팅을 시켜서 두께감을 강조한 직물이 많았으며, 극세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수 기능을 갖는 고밀도 직편물 소재도 많았다. 고밀도 직물의 경우에는 광택감을 강조한 소재보다는 고밀도 직물이 갖는 매트한 느낌과 드라이한 감각을 강조한 소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원사의 경우, 장식사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면, 특히, 루프안의 사용이 많았다. 또한, 가는 망사나 거즈위에 두꺼운 털실로 장식을 붙여서, 원사의 굵기에 의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조밀한 조직의 형성을 위해 매우 가는 실이 사용된 반면, 매우 두꺼운 실을 사용해 흡스편의 느낌을 강조하거나, 실 대신 세폭 테이프를 중간 중간 삽입해 장식성을 강조하거나, 직물을 길게 찢어서 삽입하거나, 펠트 조각을 라셀(raschel) 네트 위에 붙이는 등의 실험적인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금속사의 사용도 두드러졌는데, 금속사의 사용을 겉으로 두드러지게 내세우기 보다는 핀 스트라이프 직물에 스트라이프 형성에 사용된 경사가 금속사거나, 이중직 사이에 금속사를 끼워서 조직 사이로 들어나는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패턴의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의 표현이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였다. 체크, 스트라이프, 하운즈 투스, 마름모, 헤링본등의 전통적인 문양들이 프린트, 직조, 편직, 엠보싱, 펀칭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되었다. 따

라서, 전통적인 깔끔하고 점잖은 느낌의 기하학적인 패턴이 아니라, 좀 더 흐릿하고,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양들로 재해석 되었다. 예를 들어, 커다란 산형 문양(pointed)이 플러쉬(plush) 소재의 털을 부분적으로 깎아서 표현되는가 하면, 인조 모피의 털을 헤링본 문양으로 깎거나, 자카드에 기하학적 패턴을 엠보싱하거나, 라셀 네트 위에 굵은 털실로 마름모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헐겁게 짜여진 니트 위에 네모난 스팅글로 기하학적 모양을 형상화 한다던지, 바둑판, 사선, 곡능직의 엠보싱과 퀘팅이 자주 사용되었고, 기존에 직조에 의해 형상화되었던 전통적인 문양들이 니트로 형상화되는, 여러가지 기법에 의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패턴들이 평면적인 2차원적인 패턴에서 구조적 입체감을 강조하는 3차원적인 패턴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장식의 경우, 화려하지만 내추럴한 질감과 부피감을 강조하는 장식등이 많이 선보였고,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의 소재들의 유기적인 연관을 강조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즉, 여성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소재인 망사나 레이스에 남성적인 질감과 부피감 있는 소재들로 화려하게 장식되거나, 부직포, 펠트, 뜯겨진 천조각등의 거친 느낌의 소재가 부착되어 이질적이지만, 전체적인 색상이나 이미지에서 조화를 찾아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보다 장식의 효과를 가공이나 퀘팅에 의한 구조나 입체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염색/가공의 경우,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엠보싱 가공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으며, 번아웃등의 가공도 일부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분만 수지처리한 후 캘린더링을 해, 일부분만 캘린더링된 문양이 나타나게끔 하는 가공도 있었고,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패턴이 이루어지도록 구김이 가게 한 소재, 구김 가공 후 프린팅을 해 불균일한 이미지를 강조한 소재, 파치먼트 가공, 발수 가공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constructing"이라는 테마와 맞물려, 가장 주요한 가공 기법은 구김 가공과 과대한 엠보싱이 주요하게 사용되었고, 이러한 구김이나 엠보싱 소재에 다시 크게 볼륨을 잡아 퀘팅한 소재들이 돋보였다.

2. Wool

겨울철 소재의 가장 주요한 소재인 양모 소재를 모아서 전시구성을 한 포럼이다. 2004/05 F/W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재의 서브테마는 <표 3>과 같다. 기하학적 문양(geometric, graphics, symbolic)이 강조되었으며, 불균일함(irregular, blurry, rippling, unfaithful, intermittents), 부피감(rippling, hairy fabric, macro, puffy)이 주요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섬유 조성의 경우, 모를 주축으로 해서, 캐시미어등의 고급소재와의 혼방, 폴리에스테르, 나일론과 같은 소재와의 혼방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름 소재인 린넨과의 혼방도 시도되었다.

색상은 검정과 흰색의 기본색에 오렌지, 버건디, 핑크, 녹색등이 매치되어 사용되었고, 갈색과 베이지 계통의 내추럴한 색상들도 많이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검정과 흰색으로 표현되었던 헤링본도 오렌지와 머스타드 색상, 버건디와 흰색, 갈색과 흰색으로 표현되는 등의 시도도 이루어졌으며, 오렌지와 퍼플의 하운즈투스가 선보이는 등 전통적인 문양에 대한 다채로운 색상의 시도가 돋보였다.

조직의 경우, 전체적으로 굵은 실을 사용한 밀도가 낮은 조직이 많았는데, 방모를 사용한 트위드, 성글게 짠 니트, 하운즈투스, 스트라이프, 체크등을 나타내기 위한 조직의 설계가 많았다.

원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원사의 불균제성을 강조하는 식엔신(thick and thin)사와 헤어리 안(hairy yarn), 루프 장식사등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또한, 2종 이상의 색감을 표현하는 멜란지사(melange yarn), 모

틀사(mottle yarn), 재스퍼사(jasper)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모보다는 방모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패턴의 경우, 기하학적이거나 전통적인 패턴, 하운즈투스, 헤링본, 체크, 타탄, 스트라이프등을 여러가지 기법으로 내추럴하게 표현해내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헤링본의 경우, 깔끔한 느낌의 헤링본이 아니라, 굵은 방모사를 사용해 흐릿한 느낌의 헤링본을, 오렌지와 골드색상을 매치하거나, 버건디와 화이트를 매치하거나, 슬립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체크의 경우, 비비드한 체크 위에 더러운 오염이 묻은 듯한 프린팅을 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서 닳은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프린팅을 해서, 시각적 오해를 유도하는 문양등이 사용되었다. 털제품의 경우에는 단색의 경우보다, 기린이나 표범들의 동물문양을 사용했으며, 털을 부분적으로 쉬어링해 무늬를 형성하기도 하고, 털 위에 프린팅을 하기도 해서, 프린팅한 문양이 불균일한 외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질감의 경우, 방모 느낌의 거칠고, 재질감을 강조한 헤어리한 느낌의 소재가 주류를 이루었다. 슬립사, 넵사, 루프사등의 장식사 사용에 의한 재질감과, 구김 가공에 의한 재질감, 과장된 헤어리 안(hairy yarn)과 부클레 안(boucle)을 사용해 성긴 리노 조직을 짜서 실의 질감을 강조하는 등의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인조 모피의 경우, 군데 군데 털을 자르거나, 털의 길이를 달리해서, 전체적으로 불균일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염색/가공 면에서는 선염의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선염된 원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직물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디자인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또한, 선염된

<Table 3>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Wool Forum.

| | | | | |
|---------------|--------------------|------------------------------|----------------------|----------|
| GEOMETRIC | IRREGULAR GRAPHICS | DECORATIVE GRAPHICS | CONTRASTING GRAPHICS | DRY |
| BLURRY | SYMBOLIC | NEAT | CONCENTRATED | RIPPLING |
| HAIRY FABRIC | FUR | ARTIFICIAL FUR (DISHEVELLED) | UNFAITHFUL | UNCTROUS |
| INTERMITTENTS | AMBIVALENT | SALLANTS | MACRO | PUFFY |
| CARESSING | | | | |

원사를 사용해 체크등의 문양을 직조한 후, 그 위에 다시 프린팅을 해서, 낡은 느낌이나 오염된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인조 모피등에 프링팅을 해 불균일하게 드러나는 프린팅의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구김 가공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장지에도 구김 가공을 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모피의 쉬어링에 있어서는 일부러 털의 길이를 달리한 다거나, 털이 뜯겨나간 듯이 쉬어링을 한다거나 해서, 조작된 실수의 느낌을 부가하였다. 인조 모피 소재에 엠보싱 가공을 하는 등의 시도 등도 엿보였다.

기능성 측면에서 모 소재군에서는 기능성 증진가공을 한 소재들은 많이 볼 수 없었고, 단지 스트레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스판덱스를 함유한 소재와 다른 합성 섬유를 혼방한 소재들, 방오가공 소재들이 일부 있었다.

3. Silk/Lace/Embroidery

실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색상, 갈색, 베이지, 황금색, 오렌지, 옐로, 그린등의 색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재질감을 강조한 여러가지 소재가 등장했다.

섬유 조성의 경우 견 100%로 실크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소재와 소모와의 혼방 소재로 100% 실크와는 다른 질감을 부여하는 소재가 있었다.

원사의 경우, 조밀한 조직을 형성하는 세번수의 원사와 거즈나 망사등을 형성하는 굵은 원사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망사나 거즈직 위에, 굵은 털실이나, 펠트 조각, 부직포등으로 장식해 원사의 질감의 대비를 강조하는 소재들이 많이 선보였다. 또한, 금속사들의 사용으로 실크가 갖는 광택 이외에 다른 광택의 느낌을 선보였는데, 이러한 금속사는 드러나서 사용되기보다는 이중직 사이에 숨어서 조직 사이로 들여다 보이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거나, 레이스의 일부분에 사용되었다.

조직의 경우, 밀도가 매우 높은 조밀한 조직과 루스한 조직이 대비적으로 사용되었다. 조밀한 조직의 실크는 드라이하고, 바삭거리는 느낌의 재질감을 주는 반면, 루스한 조직은 부드럽고 오픈된 느낌을 강조했다.

문양의 경우,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하학적인 패턴등이 많았으며, 이러한 기하학적인 문양은 매우 크게 표현되거나, 넥타이등에 사용될 정도로 작게 표현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장식이나 퀵팅등으로 강조되었다.

장식의 경우, 스팅글이나 메탈릭 안의 광택이 주요하게 사용되었으나, 금속적인 광택의 느낌보다는 브론즈 계열의 색상을 띄는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 광택으로 사용되었다. 다양한 소재들, 펠트, 테이프, 부직포, 모피 조각등이 장식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라셀 네트나 거즈 조직 위에 장식함으로서, 대비되는 소재의 느낌,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비, 부드러움과 거친 느낌의 대비등을 강조하며, 또한, 색상이나 이미지면에서 대비되는 소재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4. Shirting/Color Woven

셔츠지를 용도로 하는 소재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매트하고 드라이한 느낌의 광택이 감소된 듯한 느낌의 소재가 주류를 이루었다. 셔츠군의 소재에 대한 서브 테마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체크와 줄무늬, 섬세함이 강조된 우븐등이 선보임을 알 수 있다.

섬유 조성의 경우, 면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고급 코마면사의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강조되었다. 면에 약간의 합성섬유의 혼방이 된 경우도 있었으며, 실크와의 혼방, 소모사와의 혼방도 시도되었다.

색상의 경우, 흰색과 하늘색을 주조로 하여, 검정, 버건디, 빨강, 파랑, 베이지, 인디고, 파스텔 컬러등이

<Table 4>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Shirtings/Color woven.

| | | | | |
|----------|------------|----------|------------|-----------|
| CHEXXX | EXCELLENCE | LIVELY | METICULOUS | OPTICAL |
| PRECISE | CONTRASTS | DELICACY | CLUB | NOSTALGIA |
| MULTIPLE | | | | |

악센트로 사용되었다. 색상의 전체적인 톤은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은은한 컬러 매치가 주류를 이루었다. "Optical"의 경우에는, 흰색과 악센트 컬러를 매치시켜, 즉, 흰색과 검정, 흰색과 파랑, 흰색과 베이지, 흰색과 빨강, 흰색과 하늘색등으로, 명암 대비가 되는 작은 기하학적 무늬를 표현하였다. 멀티 스트라이프(multi-stripe)의 경우, 여러색의 색상을 이용한 스트라이프가 작년에 이어 사용되었으나, 채도가 높은 보색계통의 색상을 매치시켜 발랄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었던 작년과는 달리, 채도가 다소 낮은 비슷한 명도와 채도의 유사색상군을 매치시켜 조화롭고, 차분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색보다는 한색이면 한색계, 난색이면 난색계등의 같은 색상군끼리 매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악센트 컬러로 사용된 색상의 실이 작은 체크나 핀 스트라이프 등에 조금씩 드러나게 사용되었다.

조직의 경우, 매우 조밀한 조직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작은 도비 조직이나, 기하학적 무늬의 직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세번수의 코마면사가 조밀한 평직으로 짜여져, 매트한 느낌이 강조되었다. 악센트 컬러의 다발의 실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직조해 작은 체크등을 형성하도록 한 직조등도 많았으며, 흰색과 검정등의 대비되는 색상의 실을 경위사로 각각 사용해 기하학적 무늬의 도비조직으로 대비되는 색사의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원사의 경우, 깔끔한 느낌의 코마면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광택감이 덜하고 조밀한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금속사들이 핀 스트라이프 등에 가끔씩 사용되었으며, 소모사의 혼합도 가끔 있었다.

패턴의 경우, 전통적인 기하학적 무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문양들이 좀더 매트한 느낌의 질감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질감

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트한 질감이 우세하였으며, 광택감이 사라지고, 기모된 부드러운 느낌의 면 플란넬이나, 융등도 사용되었다.

가공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모 가공이 부드럽고, 흐릿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다른 소재군과 같이, 잘못 다려진듯한 구김 가공도 사용되었다. 기능적인 측면의 부가적인 가공은 눈에 띄지 않았으며, 편안한 느낌과 활동성을 부여하는 스트레치 원단 등이 사용되었다.

5. Knit

편물 소재군의 경우, 대표되는 서브테마를 <표 5>에 나열하였다. 소재의 복합(ambivalent, diffuse, amalgam)과 부피감(diffuse, puffy, bulky)의 강조가 우세함을 알 수 있고, general forum이나 shirtings와는 달리, 일부 광택감이 있는 소재의 사용(gleaming, metallic, silky)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무늬 (graphic) 의 강세와 조밀한 조직(dense), 재미 있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playful, amalgam)가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색상의 경우, 검정과 갈색계통의 내추럴한 컬러가 주조를 이루며, 채도가 낮은 파스텔 계열이나, 버건디, 핑크, 노랑, 녹색이 악센트 컬러로 사용되었다. 금색과 은색, 동색(copper)의 금속 색상도 사용되었다. 금속 색상은 금속사의 부분적인 사용과 은분의 프린팅으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에 악센트 색상이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중직의 경우, 겉과 안의 색상이 대비되는 색상보다는, 같은 색상이나, 매치되는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한가지 단색의 소재가 드물었고, 원사 자체의 색상에서 여러 색상을 가지는 다색사의 사용이 많아 여러 색상의 혼

<Table 5>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Knit.

| | | | | |
|------------|----------|---------|---------|---------|
| AMBIVALENT | GLEAMING | COSY | DIFFUSE | PRECISE |
| DRAPING | METALLIC | AMALGAM | DENSE | SILKY |
| UNCTUOUS | GRAPHIC | PLAYFUL | ANIMAL | PUFFY |
| BULKY | | | | |

합이 유사배색으로 이루어졌으며, 모피의 경우에도, 한 가지 색상이 아닌 겉털과 속털의 이색을 보이는 소재가 대부분이어서, 내추럴한 트렌드와 복합 현상을 반영했다.

조직의 경우, 저지(jersey)편이 매우 우세하였으며, F/W 시즌인 만큼 저지의 방풍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직이 많이 이용되었다. 매우 루스한 조직에서부터, 매우 조밀한 조직까지 다양한 조직이 사용되었다. 루스한 조직에서는 굵은 실의 여유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조밀한 조직의 경우, 세번수의 편사를 이용하여 밀도가 높은 저지편으로 매트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중직의 경우, 겉과 안에 다른 조직을 사용하기보다는 같은 조직과 유사 색상 배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원사의 경우, 다른 소재군에 비해 장식사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루프 안과 헤어 안등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금속사의 사용도 있었으며, 다양한 금속광택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금속사를 이중직의 사이에 넣어 조직 사이로 비쳐보이는 광택을 시도하거나, 금속사 자수를 하거나, 장식사의 형성에 금속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멜란지사, 모틀사, 채스퍼등 다색사의 사용이 많았으며, 타월루프나 부클레사의 사용도 많이 이루어졌다.

문양의 경우, 전체적인 트렌드와 부합해 기하학적 문양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편직으로 하운즈 투스나 사선등의 문양을 형성하거나, 컷파일사로 편직된 소재 표면의 파일을 마름모등으로 쉬어링해 문양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편물의 전통적인 파베기등의 문양은 거의 없었고, 직물에 자주 사용되는 문양이 편직으로 재생되

어 흐릿하고, 불균일하나,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질감의 경우, 루스한 조직에 표면의 잔털등에 의해 거친 질감을 주는 편물과 조밀한 조직의 이중직인 매트하고, 드라이한 질감을 주는 소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벨로아등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들도 다소 있었고, 펠팅으로 두께감과 조밀한 느낌을 강조하는 소재도 있었다.

장식의 경우, 루스한 조직의 편물에 두꺼운 털실등으로 장식하거나, 두꺼운 색사를 편물조직 중간에 삽입해 문양을 형성하는 자카드 편이나, 은분을 모우가 길게 기모된 소재위에 프린팅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거나, 인조 모피 위에 군데 군데 비닐을 붙이는 등의 시험적인 시도가 다수 이루어졌다.

후처리의 경우에는, 기모가 다수 있었으며, 인조 모피의 경우 부분적인 쉬어링과 프린팅등이 사용되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중직을 사용함으로써 편물의 단점이 방풍성을 보강하였고, 스판덱스의 혼방으로 스트레치성을 증가, 니트의 처짐을 보강하는 기능이 첨가되었다.

6. Denim/Corduroy

데님과 코듀로이를 나타내는 서브테마를 <표 6, 7>에 나타내었다. 데님과 코듀로이 소재군 모두 도시적인 느낌과 깔끔한 느낌(urban, clean, luster, soft)을 강조하였으나, 자연스러운 불균일성(sophisticated irregularities, scraped, striated, nuanced irregularities)을 내포하는 소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Table 6>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Denim.

| | | | | |
|---------------|----------|----------|---------|---------------------------------|
| URBAN | CLEAN | VIBRANTS | SCRAPED | SOPHISTICATED IRREGULARITIES |
| EXTREME DENIM | STRIATED | NUANCED | | |

<Table 7>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Corduroy.

| | | | | |
|---------------------------|-------|--------|------|------------|
| NUANCED IRREGULARITIES | URBAN | LUSTER | SOFT | COMPRESSED |
|---------------------------|-------|--------|------|------------|

을 알 수 있다.

데님의 경우, 면소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스판덱스의 혼방이나, 코듀라(Cordura®)의 사용도 시도되었다. 색상은 주로 인디고 계열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극도의 워싱에 의한 소재의 부분적 백화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dirty denim”이라고 불리는 워사에 옐로나 브라운 계통의 실을 사용하여, 오염된 듯한 느낌을 주는 데님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워사에 오렌지나 자주등의 실을 사용하여 산뜻한 느낌을 주거나, 경사에 검정이나, 회색, 갈색등의 실을 사용해 인디고 색사의 데님과 다른 느낌을 주었다. 선염뿐 아니라, 후염직물도 많아, 깔끔한 느낌을 주기도 했으나, 데님의 불균제성은 주로 경면능직의 파괴에 의한 불균일한 재질감으로 표현되었다. 기존의 데님은 경사에는 인디고 색상의 경사, 워사에는 백색의 표백사를 사용하여 경면능직으로 제작하여, 표면에는 경사의 색상이 많이 드러나고 이면에는 워사의 색상이 많이 드러나서, 시간이 지나거나, 워싱처리에 의해 경사가 닳아 내부에 염색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거나, 워사가 드러나서 색상의 변화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직물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데님의 자연스러움은 주로 조직의 변화에 의한 재질감과 줄이 간듯한 느낌을 주는 시각적인 효과에서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능직과 중간중간의 평직의 혼합으로 평직에 워사가 겹으로 드러남으로 데님의 사문선의 파괴에 의한 불연속성, 워사의 드러난 색상에 의해 줄이 간 듯한 느낌등의 불균제성, 능직의 사문선의 방향을 좌에서 우로 중간 중간 바꾼다던지 등의 불균일한 재질감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또한, 데님에 줄이 간 듯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 외에, 인디고 색상의 경사 중간에 파란색이나 흰색등의 색이 다른 경사를 삽입해주었다. 따라서, 데님의 경우, 이번 시즌의 주요한 경향인 불균일한 재질감에 의한 자연스러움이 대표적으로 잘 표현되었으나, 이러한 불균일성은 사전에 계획되고, 조작된

불균일성인 느낌, 즉, plotted irregularities 임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코듀로이의 경우, 채도가 낮은 다양한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모우(잔털)에 의한 광택감도 일부 나타났다. 코듀로이 역시 사전에 계획된 불균제성이 주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대표적으로 불균일한 립(rib)의 넓이를 들 수 있다. 립의 넓이를 기존의 코듀로이 처럼, 일정한 간격을 둔 것이 아니라, 작은 범위내에서 불균일하게 차이를 둬서, 내추럴한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바탕 조직과 파일사간에 이색을 사용함으로써 립 사이의 바탕 조직의 색상이 약간씩 비쳐보이도록 만든 코듀로이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노란 바탕 조직에 파란색의 파일사를 사용하거나, 오렌지색의 바탕에 갈색의 파일사를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경사에 빨강의 워사와 워파일사를 사용하거나 해서, 이색의 조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사선의 립을 형성하거나, 구김 가공을 한 소재, 이중직으로 보온성을 향상시킨 소재등이 많았고, 코듀로이의 모우(잔털)를 짧게 깎아준 다음, 캘린더로 눌러서, 멀리서 보면 줄무늬 같지만, 실제로 코듀로이 소재인 것도 있었다.

7. Sportswear/Activewear

스포츠, 액티브 웨어에 사용되는 소재군의 서브테마가 <표 8>에 나와있다. 보온성, 보호성, 기능성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도시풍의 느낌과 광택 소재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웨어 소재군은 이번 시즌의 소재군 중 겹으로 드러나는 광택감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소재였고, 소재의 특성상 기능성이 가미된 이미지나, 실제 기능성을 가미한 코팅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중직이 많이 사용되었고, 겹은 투습 방수, 혹은 발수성을 가지는 코팅이나 멤브레인 접착이 사용되고, 이면은 보온성과 편안한 촉감을 가진 기모 소재나 니트 소재등이 많이

<Table 8> Themes of textile samples shown in Sportswear/Activewear.

| | | | | |
|------------------|---------|--------|------------|-------------|
| IMPURTINENTS | COMFORT | WARMTH | PROTECTION | IMPREGNATED |
| BRILLIANCE SHINE | SHIFTED | URBAN | | |

사용되었다. 또한, 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안감의 메쉬(mesh) 편물등도 많이 선보였으며, 색상은 금색, 코퍼(copper), 버건디, 인디안 핑크, 인디고 등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또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증가함에 따라,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적 측면의 기능성인 자외선 차단, 재귀반사, 보온성 증진, 투습 방수 소재와 활동성을 강조하는 스트레치 소재, 관리의 편이성을 보장하는 이지케어 소재도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내추럴의 트렌드와 맞추어 구김 소재도 스포츠 웨어 소재군까지 확장되어 선보였다.

V. 2003/04 F/W Première Vision과의 비교

작년의 프리미에르 비종(2003/04 F/W)은 retro라는 테마로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과거로의 복귀등을 제시하는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강조하는 소재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올해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서로 상반되는 테마, 대비되는 요소간의 조화와 기존의 조화와 부조화 개념에 대한 도전이 시도되었다. 소재면에서는 모가 주류를 이루고, 실크, 캐시미어, 면등이 사용되었고, 컬러면에서 색상톤의 배합에 의해 형성되는 부드러움이 강조되었다. 주요 색상은 중성적인 파스텔 색상과 갈색, 회색, 검정계통의 색상이었으며, 따뜻한 색상과 차가운 색상의 대비가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부클레사등의 장식사의 사용도 많았으며, 가볍고, 부드럽고, 에어리(airy)한 느낌의 질감이 강조되었다. 표면의 변화를 유도하는 엠보싱, 스탬핑, 플록킹등의 가공과 슬립사가 사용되었다. 편안함을 강조하는 스트레치 원단과 투습 방수등의 기능성 원단이 선보였다.(Samsungdesign Net, 2003, Fair report, Première Vision 2003/04 F/W)

지난해에 이어, 2004/05 F/W의 소재들도 자연스러움이 강조되고, 상반되는 소재나 이미지의 조합을 시도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컬러면에서 좀더 중후해지고, 소재의 부피감과 구조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또한, 가벼운 질감의 편안한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었던 2003/04 F/W 소재와는 달리, 2004/05

F/W 전시회에서는 여러겹의 본딩이나 패딩, 퀴팅, 펠팅등에 대한 무게감과 부피감이 현저하게 증대되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VI. Interstoff Asia의 Textile Trend와의 비교

2003년 10월 7-9일간 홍콩에서 열린 인터스토프 아시아(Interstoff Asia)의 소재경향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라이프 트렌드인 웰빙(well-being)과 맞물려, 기능성과 편안함, 활동성이 강조된 소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시 테마는 gentle, polished, refuge, exclusive의 네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컬러 트렌드는 빛바랜듯한 색감과 내추럴한 가을색(채도가 낮은 녹색, 갈색, 노랑색)등과 어둡고, 중성적인 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금속의 광택에 의한 골드, 브론즈, 코퍼등의 색상등도 악센트 컬러로 사용되었다. 소재에 있어서, 다층 구조의 복합 직물, 울과 울혼방, 캐시미어, 알파카, 모헤어등의 헤어 섬유와 실크등의 고급 소재의 사용, 부클레등의 팬시안을 이용한 질감의 강조, 두께감을 강조하기 위한 펠팅, 본딩, 패딩등의 기법, 기하학적 패턴의 사용, 조밀한 조직의 저지나 우븐, 신축성을 주기 위한 스판덱스의 사용, 메탈릭 안의 정장지예의 사용, 재질감을 강조하는 기모 소재, 투습 방수, 재귀반사, 온습도 조절, 정전기 방지등의 기능성 소재, 광택이 있는 고밀도 직물과 금속사를 이용한 레이스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감각의 재질감, 부피감, 금속광택감등이 강조되었으며,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amsungdesign Net, 2003, Interstoff Asia 2003 Autumn) 따라서, 인터스토프 아시아에 전시된 소재들도 프리미에르 비종에 전개된 소재의 경향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VII.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제시한 2004 F/W Textile PreTrend와의 비교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제안한 2004 F/W의 소재 트

렌드는 전체적으로 질감, 두께감, 부피감등이 강조된 소재들로 soft & comfortable, mix & match, allure elegance, warmness & neutral, technical & protection이라는 테마로 전개된다. 벨벳, 얇은 스웨이드, 코듀로이등의 파일 소재가 질감을 강조하며, 펠트와 분딩, 패딩, 퀴팅등으로 부피감이 부각된다. 다양한 컬러와 립넛이를 가지는 코듀로이나 낮은 이미지를 주는 프린팅이나 왁스코팅의 균열등으로 불균일성이나 오래된듯한 감각으로 내추럴한 트렌드를 강조한다. 또한, 조직은 프리미에르 비종에서와 동일하게 매우 조밀하거나 성글게 짜여졌으며, 염색/가공면에서 오버프린트(overprint) 등의 2-3종의 가공/염색/장식등이 사용된다. 또한, 이러한 가공이나 염색등은 오래된 느낌을 내기 위해 정교하게 의도되고, 조작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프리미에르 비종이나 인터스트프에서 보여지는 경향과 같이 스트레치 원단의 사용과 기능성을 부각시킨 소재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장식사의 사용과 흡스펀등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Samsungdesign Net, 2003, SFI Trends 2004 F/W) 컬러면에서, 회색조의 색상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어두워지고, 중성적인 색상의 확대, 선명하고 강한 색상의 감소, 어둡고 중후한 색상의 사용의 증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린계열의 색상의 감소를 보이며, 어두운 블루계 색상의 사용이 증대되며, 퍼플계의 색상은 지난해에 이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나 질감, 가공면에서는 프리미에르에서 전개된 소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컬러면에서 자연스러운 갈색계통의 색이 주류를 이루고, 녹색과 주황, 핑크 등이 악센트 컬러로 사용된 프리미에르 비종의 색상 경향과는 달리, 어두운 블루나 퍼플의 사용, 그린의 퇴보등의 다른 색상 팔레트를 제시한다.

VIII. 결론

이번 시즌의 전반적인 소재 동향은 natural/ecology, geometry, combination의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Natural/ecology는 전반적인 색채와 재질감등

에 의해서 표현되고, 불균제성에 의해서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불균제성은 고난위의 기술과 조작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Geometry는 소재 전반의 문양의 표현에 있어, 예외없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하학적 문양의 다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예외감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기하학적 문양은 전통적인 직조에 의해 표현된 정리되고 깔끔한 느낌이 아닌, 흐릿하고, 불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Combination은 우선 소재의 혼합에서 그 주요한 흐름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두세가지의 섬유 혼합에서, 5-6가지의 섬유가 독특한 외관과 기능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하나의 소재에 혼방되었다. 복합화의 양상이 섬유 소재의 혼방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감성의 혼합이나 이질적인 느낌의 소재의 혼합등으로 소재에 구현되었는데, 이러한 상반/대비되는 소재들이 전체적인 색상이나 질감면에서 조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의글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Première Vision, (2003, February). Première Vision, A Permanent Evolution. Retrieved July 15, 2003 from <http://www.premierevision.fr>
- 2) Première Vision(2003, September 17). Salon Info, 2004/05 F/W. Retrieved Sept. 30, 2003 from <http://www.premierevision.fr>
- 3) 김정규, 박정희. 패션소재기획, 교문사, 2001
- 4) 권오경, 고재운, 김진섭, 김태규. 패션소재기획과 신소재, 한림원, 2001
- 5) 박광희, 김정원, 유화숙. 섬유·패션 산업, 교학연구사, 2000
- 6) Première Vision(2003, September). Performance

- Codes. Retrieved Sept. 30, 2003 from <http://www.premierevision.fr>
- 7) Première Vision(2003, September). Fashion Info, Season 2004/05 F/W, Première Vision
- 8) Samsung Design Net(2003, November). Fair report, Première Vision 2003/04 F/W. Retrieved November 12, 2003 from <http://samsungdesign.net>
- 9) Samsung Design Net(2003, November). Fair report, Interstoff Asia 2003 Autumn. Retrieved November 12, 2003 from <http://samsungdesign.net>
- 10) Samsung Design Net(2003, November), SFI Trends, 2004 F/W. Retrieved November 12, 2003 from <http://samsungdesign.net>
-
- (2003년 9월 29일 접수, 2003년 11월 15일 채택)